

‘노는 시험·연구장비 없애기’ 범국가적 추진

**산자부, 48개 유관기관 6천여종 보유장비 교환-임대-공동활용방안 도입
장비 활용도 제고 위해 '기술인프라 파트너십' 구축 ... 전 부처로 확대도 추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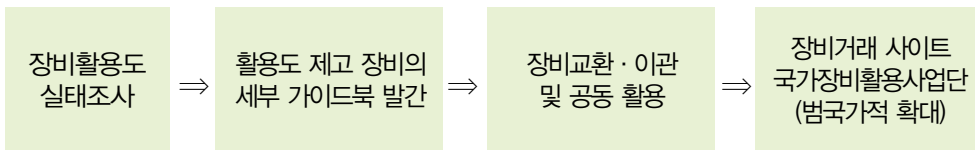
[개 요]

- 한·미 FTA 타결, 한·EU FTA 협상 진행에 따른 연구개발(R&D) 경쟁력 제고와 시험분석 등 기술 서비스 시장의 개방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[기술인프라 파트너십(Partnership)]사업 계획을 발표하고, 보유장비의 교환·이관 및 공동활용 등을 통해 시험·연구장비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함
-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, 5.21일(월) 팔레스호텔에서 오영호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, 연구기관, 시험평가기관 등 산자부 관련 48개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함
- ※ 행사명 : FTA 시대 산업기술 인프라 경쟁력 강화 정책 간담회
 - 시험·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인프라 파트너십 구축 -

〈 기술인프라 파트너십 〉

▷ 참여기관 : 정부(중기청, 기술표준원), 연구기관(전품연, 자부연, 생기연 등 28개), 시험평가기관(화학·전기 전자·건자재시험연구원 등 18개) 등 48개 기관
 ⇒ 참여기관 보유장비 13,400여종(2조 5천억원) 중 활용도 제고 대상은 6,000여종 (1조 7천억원) 가량

▷ 추진절차



[추진배경]

- WTO/TBT 협정, FTA 등 자유무역 체제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시험·분석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- ※ 시험·분석 서비스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이 50조원, 국내시장이 2.2조원으로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됨('05년)
 - 따라서, 기술적 서비스 산업(시험분석 등)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에서의 기술장벽(TBT)을 해소하기 위한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MRA 협정의 확대에도 적극 대비하여야 함
 - ※ 국내의 국제표준 적용 시험평가 능력은 '05년 기준으로 43% 수준이며, '12년까지 80%로 향상시키기 위한 '장비현대화 5개년계획'을 별도로 수립 중임
- 또한, 급격한 신기술발전과 기술융합으로 시험연구 장비의 활용수명 주기가 단축되고, 첨단 시험연구 장비의 확보 여부가 핵심기술개발 성패를 좌우
 - 이로 인해, 시험·연구기관마다 유사한 장비의 중복구매가 확대되고 보유장비의 활용기간이 단축되는 등 R&D 완료 후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저하되어 유휴장비화 되면서 국가적인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 -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기부, 산자부 등 부처별로 장비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필요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타기관에서 보유한 장비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

[추진 사업내용]

〈 장비 활용도 제고 실행 방안 〉

- ▷ 파트너십 참여기관 간의 장비교류 활성화
 - ① 기관 상호간 장비 교환·이관, ② 정책사업 연계활용, ③ 교육용으로 기증
- ▷ 활용도가 낮은 보유장비의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
 - ※ 사용빈도는 낮으나 보유가 필요한 장비는 기관 간의 공동 활용방안 마련
- ▷ 보유장비에 대한 상시 거래 사이트 개설 및 지원
 - ※ 보유장비 중 사용 목적이 완료된 장비의 교환·매매·임대 등의 거래를 촉진

- 이러한 시점에서, 산자부는 증기청 및 기표원을 포함한 장비보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장비운영 실태를 정밀조사하여 「기술인프라 파트너십」사업을 통해 장비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함
 - 현재, 48개 산자부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보유 규모는 총 13,400여종이고, 이들 장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6,000여종(45%)인 것으로 파악되었음
 - 특히, 기술표준원은 이번 「기술인프라 파트너십」사업의 추진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자체 보유장비(2,010종)의 75%인 1,500여종(구입단가 500만원 이상 650종)을 타기관 이관대상 장비로 분류하고 장비를 활용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음

- 산하/유관기관의 장비실태를 파악하여 유휴장비에 대해서는
 - 첫째, 「기술인프라 파트너십」사업에 참여한 기관들 간에 필요장비를 교환 또는 이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,
 - 둘째, 부품소재산업육성 등 산자부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 성과를 배가하는 한편,
 - 범용성 장비에 대해서는 공고(工高) 또는 이공계 전문대학 등에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실습용 장비로 활용하도록 함

- 이와 함께, 산업자원부는 기관 상호간 장비교류 활성화와는 별도로 해당기관이 보유하며 활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도 타 기관이 손쉽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반적인 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
 - ※ 48개 기관의 공동활용 예정 장비는 4,240여종(1조8천억원) 가량으로 전체 장비의 32%로 조사되었음

- 또한, 특정 R&D를 완료한 후 사용되던 장비의 활용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점을 감안하여, 이러한 장비를 상시 교환, 매매, 임대 등의 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'장비 거래 사이트'를 운영하는 방안과,
 - 국가 전반적인 시험·연구 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사분석·거래·대책마련 등을 하기 위한 '국가장비활용사업단(가칭)'의 구성·운영 등을 검토하기 위해 「시험·연구기관 보유장비의 활용도 제고 방안」에 관한 정책용역 사업도 추진할 예정임

【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】

- 산업자원부 오영호 제1차관은 "이번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책사업의 예산 절감 효과 뿐 아니라 R&D 수행기간과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당 수준 단축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"이라고 설명하고,
 - "장비활용 실태조사 용역결과 및 기관별 파트너십 참여도에 따라 R&D 참여시 특정 장비구매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장비활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"이라고 밝힘

- 산업자원부는 이번 「기술인프라 파트너십」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험·연구장비 운영 시스템을 보완 개선한 후, 점차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혁신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, R&D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,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시험분석 장비 등 기술인프라의 운영능력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
 - ※ 정책간담회 촬영 사진은 행사진행과 동시에 산자부 홍보기획팀을 통해 기사단에 배포할 예정임

